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'16년 12월 1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8(일) 오전 09시부터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16. 12. 17 (토)	담당부서	철강화학과, 다자통상협력과
담당과장	김종철 철강화학과장 (044-203-4280) 서기람 다자통상협력과장(044-203-5640)	담 당 자	이재석 사무관(044-203-4285) 구교영 사무관(044-203-5645)

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「글로벌포럼」 출범

- G20 정상회의 ('16.9월, 중국 항저우) 후속 조치로 세계 주요국들은 『철강 글로벌 포럼』 출범에 합의

- 세계 조강생산 6위인 우리나라도 포럼 「운영위원회」 참여 확정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: 주형환)는 지난 9월 **G20 정상회의**(중국 항저우, 9.4~5)에서 각국이 구성하기로 합의한 『**철강 글로벌 포럼**(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)』이 **12월 16일 공식 출범**하였다고 밝힘

○ **(목적)** 동 포럼은 **철강 공급과잉 문제**가 세계 각국의 공동 대응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이슈라는 인식 하에,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각국 간의 **정보 공유, 협력, 효과적 대응 방안** 마련 등을 위해 구성됨

○ **(회원국) G20 국가 및 OECD 회원국 등 총 33개 국가**가 참여함

* 33개 회원국 : 아르헨티나, 호주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브라질, 캐나다, 중국, EU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인도, 인도네시아, 이탈리아, 일본, 룩셈부르크, 멕시코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러시아, 사우디아라비아, 슬로바키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대한민국, 스페인, 스웨덴, 스위스, 터키, 영국, 미국

○ **(구성)** G20 정상회의 이후, 회원국들은 **「철강 글로벌포럼」**의 임무·역할, 회원국, 운영위원회, 의장국, 예산·일정 등 **포럼의 운영세칙**(Terms of Reference)에 대해 **지속적으로 협의**하여 왔으며,

- 독일(G20 의장국)이 주관한 금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름

< 철강 글로벌포럼 1차 회의 >

- **(일정/장소)** '16.12.16(금) 09:00~17:00 / 독일 베를린
- **(참여 국가) G20 국가, OECD** 회원국 (독일, 중국 공동의장 역할)

※ **우리측 : 강준하 통상정책심의관 (수석대표), OECD대표부, 철강화학과, 다자통상협력과** 담당자

□ 금번에 각국이 합의한 『**철강 글로벌 포럼**』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

○ **(임무)** ❶ 회원국 간 철강 공급과잉 이슈에 대한 **효과적 소통, 정보 공유, 협력 증진**을 보장하고, ❷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**효과적 조치**를 통해 시장 기능 강화와 설비 조정을 촉진하는 것임

○ **(운영위원회)** 효과적 운영을 위해 9개국으로 운영위원회(Steering Group) 구성·합의, **'G20 의장국 + 8개 주요 철강 생산국*** 참여함

* 8개 주요 철강 생산국 : 중국, EU, 일본, 인도, 미국, 러시아, **한국**, 브라질

○ **(의장국)** 매년 새로 선정하되, **G20 의장국은 당연직**, 운영위원회에서 **2개 국가**를 **지역간** 및 **선진국-개도국간 균형**을 고려하여 선정함

* '17년도는 **독일**(G20 의장국), **미국**, **중국 등 3개국**을 의장국으로 선정

○ **(회의) 1년**에 최소 **2회 이상 실무급 또는 고위급 회의**를 개최

○ **(협력기관) OECD가 글로벌 포럼, 운영위원회, 의장국의 활동을 기술적·행정적**으로 지원

○ **(운영기간) 3년간 운영**하고, **회원국간 합의**에 의해 **연장** 가능

□ 특히, 금번회의에서 우리나라는 **세계 6위의 조강생산국**으로서 글로벌 포럼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**운영위원회**(Steering Group)에 **참여**하기로 확정되어,

○ 향후 **포럼 의제 선정** 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, 그간 업계 자율로 추진해 온 **설비 감축** 및 **사업재편 성과**를 알리는데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○ 차기 회의는 **오는 2월**에 개최되며, **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협력 및 공조 방안이**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이재석 사무관(☎ 044-203-4285) 또는 다자통상과 구교영 사무관(☎ 044-203-56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